2024. 6. 20.(목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19일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

감염병관리과장	송은철	2133-7660
환경보건팀장	김수정	2133-7676
식품의약품부장	황인숙	570-3211
첨가물검사팀장	김성단	570-3230
미생물관리팀장	김욱희	570-3190
관련 누리집 (신고센터)	http://ecc.seoul.go.kr	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6쪽

서울시, 해외직구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…면봉 세균검출·종이 빨대 총용출량 기준 초과

- 4.25~6.14 中 테무·쉬인 등 일회용 컵·빨대·냅킨·면봉 등 95건 안전성 검사
- 면봉 10개 중 6개 세균검출, 종이빨대 3개 총용출량(4% 초산) 국내 기준 최대 43.3배 초과
- 국내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해 접근 차단
- 6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품 선정, 구매, 검사의뢰까지 진행하고 품목도 확대
- 시, “위생용품 제품정보 꼼꼼히 확인해야…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피해 예방에 최선”

□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고, 일회용 빨대의 경우 총용출량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서울시가 테무·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(일회용 컵 29, 일회용 빨대 31, 일회용 냅킨 25, 일회용 성인용 면봉 10)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발표해오고 있다.

○ 위생용품이란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라 인체에 직·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19종 제품을 말한다.

※ 19종 : 주방세제, 일회용 컵·젓가락·빨대·종이냅킨·이쑤시개·면봉, 화장지, 일회용 타월 등

□ **이번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에서 지난 4월 25일(목)부터 6월 14일(금)까지 진행했으며, 코팅 여부와 코팅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종이 재질 빨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분석 이후 검사했다.**

○ 코팅된 종이 재질 빨대는 원재료와 코팅 재질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, 국내 기준에 '총용출량(4%초산)' 항목은 종이 재질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, 아크릴 수지 등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.

○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기구 및 용기·포장 중 재질별로 분리하여 해당 재질의 규격을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,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.

□ **안전성 검사 결과,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, 6개 제품에 대한 '세균수'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(300CFU/g)의 최대 36.7배 초과한 11,000CFU/g가 검출됐다.**

○ 기준 초과한 면봉 6개는 모두 목재 재질 축에 면체가 부착된 제품으로, '세균수'가 최소 440CFU/g, 최대 11,000CFU/g가 검출되어 최소

1.5배, 최대 36.7배를 초과하였다.

○ 세균수 검사는 면봉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측정하여 제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데,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,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.

□ **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(30mg/L)의 최대 43.3배가 넘는 '총용출량(4%초산)' 1,300mg/L이 검출됐다.**

○ 기준 초과한 빨대 3개는 종이 재질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 또는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, '총용출량(4%초산)'이 최소 196mg/L, 최대 1,300mg/L 검출되어 최소 6.5배, 최대 43.3배를 초과하였다.

□ **시는 표시기준 준수, 수시 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적정 관리 되고 있는 국내 제품과 달리,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제품정보 누락, 보관·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,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, 다중이용업소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.**

○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,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도 서울시의 요청에 협조해 주고 있다.

○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의 정식 수입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'총용출량(4%초산)'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회수한 사례가 있다.

□ 아울러, 이달부터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·구매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'소비자시민모임'과 협력하고, 화장품, 의류 외 생활 밀접 용품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검사해나갈 계획이다.

□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(seoul.go.kr / 분야별정보 〉 경제 〉 소상공인 지원 〉 공정경제 사업 〉 소비자권익보호)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(ecc.seou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(02-2133-4896) 또는 120 다산콜로 연락하거나,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(ecc.seoul.go.kr)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□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"위생용품은 신체와 직·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"며 "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붙임 :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결과. 끝.

참고자료	**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결과**

No	사진	판매 사이트	시험 품목	시험 제품	시험 결과	비고
1		쉬인	위생용품	일회용 빨대	▸ 총용출량(4%초산)이 기준치 대비 15.5배 검출됨 - 기준치: 30mg/L 이하	
2		쉬인	위생용품	일회용 빨대	▸ 총용출량(4%초산)이 기준치 대비 43.3배 검출됨 - 기준치: 30mg/L 이하 ▸ 총용출량(물)이 기준치 대비 2.0배 검출됨 - 기준치: 30mg/L 이하	
3		쉬인	위생용품	일회용 빨대	▸ 총용출량(4%초산)이 기준치 대비 6.5배 검출됨 - 기준치: 30mg/L 이하	
4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22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
5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4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

No	사진	판매 사이트	시험 품목	시험 제품	시험 결과	비고
6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1.9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 ▸ 진균수 기준치 대비 16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
7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1.47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
8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3.67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
9		테무	위생용품	일회용 면봉	▸ 세균수 기준치 대비 36.67배 검출됨 - 기준치: 300CFU/g 이하	